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 6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모슬렘권 목회자 초청 확정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목회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부터 열흘간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등 강의와 토론을 통해 자국복음화의 길 모색

제 6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회교권 목회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에 시작된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al)에서는 해마다 김치신학세미나(KIMCHI Theological Seminar)를 마련하고 현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족한 신학적 지식과 신앙경험을 보충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국제화의 물결이 국내외로 넘쳐 흐르고 있는 이 때에 타문화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중요하겠으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과 성장에 대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 장기적으로 자국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김치 신학세미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좀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려는 선교전략이다. 실제로, 김치 신학세미나에 참석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여 자국복음화

를 위한 일들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실을 계속 보고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치 신학세미나는 그간 한국교회 내에도 선교 비전을 확장시키고 타국에 대한 최상의 전도방법을 모색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1990년 동구ropa 7개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계속해 온 이 세미나는 올해도 5월 30에 시작하여 6월 8일까지 열흘간 계속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회교권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 온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성경적 교회성장원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운동,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운동, 신학교육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새벽기도운동을 배우며 자국복음화를 위한 적용점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고난 중에서 지켜 온 신앙경험과 그들이 받은 은혜들을 함께 맞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1차부터 6차까지 김치신학세미나참가국들

| 구분 | 실시일 | 영역권 | 참가국 |
|----|-----------------------|------|---|
| 1차 | 1990. 11. 2.~ 11. 11. | 동구권 |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7개국) |
| 2차 | 1991. 5. 28 ~ 6. 6. | 중국어권 |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8개국) |
| 3차 | 1992. 5. 26 ~ 6. 3. | 힌두교권 |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4개국) |
| 4차 | 1993. 5. 25. ~ 6. 3. | 아프리카 | 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디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카스칼, 말라위, 마우리티우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츠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21개국) |
| 5차 | 1994. 5. 25. ~ 6. 3. | CIS | 러시아 |
| 6차 | 1995. 5. 30 ~ 6. 8. | 회교권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2개국)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 및 재학생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여름학기 연수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연수할 수 있는 단기 수학과정을 마련하였다.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복음주의적 신학의 명문으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목회 탐방

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 프로그램의 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진과 이종윤 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연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이거나 현재 참석자 중에서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미화 500달러의 등록비와 1,600달러의 여행경비는 각자가 부담한다. 등

록기간은 2월13일(월) ~ 20일(월)까지이며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515-2104, 517-7651)으로 하면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세미나 4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1994년 3월 21일에 108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 동문회는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여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바른 목회를 위해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며 무엇보다도 교회간의 진정한 연합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회원들은 그간 연구원의 제반 활동에 협력해 왔다.

창세기 강해



소돔이 망하던 날

(19장 27 ~ 29절)

이종운 목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라고 물으며 소돔성에 내릴 심판을 면해 주시실 것을 간청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소돔 성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남색 하는 자들로 인해 끈욕을 치루는 장면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보통의 연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 도성 전체가 웅기점의 연기와 같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푹푹히 보게 된 것입니다.

1.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심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통해 심판을 예고받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듣기는 들었으나 어쩌면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잊으려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벧후 3:5).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해서도 잊으려하고, 생각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와 심판, 즉 처음과 나중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적 시간관인요, 심판을 생각하는 종말론적 사고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2. 심판은 갑자기 닥칠 것이다.

심판이 연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닥

칠 심판은 예고 없이 번개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눅17:24).

롯과 그의 처와 자녀들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하니 천사가 그 손목을 잡아 억지로 끌고 나갑니다. 먼 산까지 못가겠다고 애원해서 롯이 소알성까지 겨우 이르렀을 때, 해가 돌았다고 했습니다(23절). 소알에 도달했을 때 이미 해가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 전날 하나님과 만났던 곳에 섰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27절). 롯이 소알에 당도한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던 장소에 선 것의 시간차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심판은 순간적으로 닥친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임할 심판은 마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도적과 같이 갑자기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살전5:2, 3).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기를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가 다시 살아서 지옥을 증거한다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경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의 경고를 받을대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계시하셨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징조를 가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때를 때리시는 것임을 알고 속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 외에는 도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멸망한 사람 중에 누구도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2:12). “...이는 모든 이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롬3:19).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주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10:15)고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의 책에는 우리의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계20:12, 13, 15).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구하며 없드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믿고, 우리의 눈을 소돔을 둘러 갈보리 산에 세워진 십자가로 향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다른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없드리거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시91:7, 8)

✦ 순례자 컬럼 ✦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비통한 보고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분노를 터뜨리시는 대신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피흘림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다.

최근 일본 관서지방에 일어난 대지진 참사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케 했다. 결코 우연도 인간의 과실도 아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순례자 캠페인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2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 ①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배운다.
- ②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 ③ 진단 / 우리교회의 기도회(홍해작전, 비전2000운동)
- ④ 진단 / 개인기도생활, 기도모임
- ⑤ 제언

양태에 따라 기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람의 수를 따라 기도를 구분해 보자면 개인 기도, 소그룹(다락방) 기도, 전체 기도를 들 수 있다.

개인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를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때에 개인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개인기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품이 본래 게으르기 쉽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도록 자신을 부단

히 훈련해야 한다.

우리교회에서 소그룹 기도의 형태는 다락방 모임에서 찾을 수 있다. 다락방장의 인도 아래 다락방원의 기도제목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한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짧은 기도를 대화식으로 돌아가면서 드릴 수 있다.

전체 기도회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있다. 새벽기도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경건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사람처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생활화된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시험을 극복할 힘을 얻기도 하고, 난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금요일 밤에 행하는 금요기도회는 찬양, 설교, 합심기도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초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을 받은 후 교회, 민족, 환자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 등 폭넓은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 대부분은 우리교회의 금요기도회가 집회가 좀더 깊고 뜨겁게 드리는 기도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희망사항이었다. 독특한 열심으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에 대한 폭발할 듯한 열정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주님을 향해 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합심기도 때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참고하여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의 묘안을 합쳐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기도하는 무리의 수나 그 모습의 어떠한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교회는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일은 모이기에 힘을 쏟는 일이다. 지금,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는 극히 일부 성도만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모이는 열심만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겠다.

▶ 생활 속의 단상

숨 좀 돌리고, 생각의 씨앗을 뿌려보자

김 승 기 (집사, 2교구 역삼 다락방)

“바쁘다, 바빠”를 연발하며 공연히 분주하고 번잡하고 무언가 정리되지 못한 미진한 느낌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교통체증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의 홍수, 우리를 자극하는 대중 매체의 영향 속에서 머리 속은 과부하현상으로 항상 부글부글 거른다. 가슴은 뜨겁고, 손발은 민첩하며,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는데 자꾸만 거꾸로만 치닫는 미련함에 스스로 역겹기까지 하다.

보고 싶고 꼭 만나보아야 할 사람은 막상 만나지도 못하면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밀고 당기는 일이며, 진심이 결여된 겉치레와 과장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필요하게 오가야 하는 많은 말과 일속에서 진실이란 찾기가 어려우니 공허감마저 든다. 초고속화라는 시류 속에 영혼은 고갈되어 가는 채 쿵쾅거리는 불안, 초조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내가 선 위치는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기에 얼마나 적합한 곳인지 조심스레 자문해 본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소달구지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마부의 한가한 모습은 5, 60년대이나 가능했던 풍경화인가? 역사가자 토인비는 자연은 신이 만든 것이라면, 도시는 악마의 총동에 끌린 인간이 만들었다고 말했다는데, 현대 도시인에게는 참된 안식처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새해를 시작하고서 새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한달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버렸다. 상황과 처지는 변하는 게 없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아 혼미한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있게 하루 하루를 지나야겠다는 조급한 마음 속에 성경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며 참 안식의 주인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발을 기경해 본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1 - 13절 말씀)

▶ 제6차 김치 신화세미나 준비하며

파키스탄 - 여기가 땅 끝 -

- 면적 - 879,811Km² ■ 인구 - 141,599,000명
- 종족 - 170개 이상의 종족. 6개의 주요어족과 수많은 방언.
- 공용어 - 우르두어 ■ 수도 - 이슬라마바드
- 경제 - 몇몇 부유층이 대부분의 농경지와 상업을 지배. 무제한적 인구증가. 영토와 물의 부족. 정부 수입의 40%를 군비로 낭용. 아프간 전쟁과 그에 따른 난민,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부패상 등과 맞물려 불황 속에 있다. 40%에 가까운 실업률. 1인당 소득은 \$370 (미국의 1.7%)
- 정치 - 인도의 한 지역이었으나 1947년 영국에서 독립했다. 인도와 세차례 전쟁을 치렀으며, 불안정한 문민정부와 독재적인 군사정권이 이어졌다. 1974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난민의 유입, 회교무장 게릴라 운동의 증가 등으로 파키스탄 내부의 불안이 가중됐고 경제발전이 둔화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타격을 받고 있다.
- 종교 - 회교국가(회교도 96.7%).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법세, 조세, 국민생활 등에 회교화 정책을 추구. 정부는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압력에 무력한 대응. 샤리아법의 지속적인 집행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회교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종교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데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기독교 인구는 1.6%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3%정도 될 것으로 추산됨. 개신교는 1.06%.
- 선교사 -
파키스탄 사역 선교사 - 72개 단체의 736명 (1:167,000명)
파키스탄 파송 선교사 - 11개 단체의 137명 (1: 9,500명)

1995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교회 장학회에서는 1995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소속 부서의 부장이나 담당 교구의 지도교역자 날인을 받은 후 성적표와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12일(다음 주일)까지 한다.

■ 더불어 사는 삶

● 음식 냄새는 싫어요.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묘안을 짜 보아도, 주일 날 우리 교회는 모두가 지내기에 비좁기만합니다. 예배시간마저도 예배실을 가득 메운 성도들로 인해 약간의 답답한 공기도 참아야만 하고, 한 부서의 공부가 마치고가 무섭게 다른 부서가 그 자리로 들어가 바로 공부해야 하는 지금 형편에서는 교사들만 마음 놓고 회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나, 안락한 휴식공간에서 담소한다거나,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 책을 볼 수 있는 일이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심지어 좁은 계단에서도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로 꽉 차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니까요.

새 예배당으로 이전한 후에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보다도 교제하며 먹을 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 부서는 주일의 점심식사 때문에 고심하였고, 이를 좋은 섬김의 기회로 생각한 성도들은 주위 사람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점심시간을 전후로 한 음식 냄새는 어쩐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하면 간소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양보의 마음과 각별한 지혜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 장난감 있으시죠?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필요없게 된 장난감, 아기 침대, 보행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탁아부에 가져 오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가져오실 곳 / 2층 탁아부실)

● 설교테이프를 나눕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나가서 전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 입원환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설교 테이프가 아주 좋은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는군요.

여러 번 듣고 집에 쌓아둔 설교테이프를 전도위원회에 가져오시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열심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출 및 문의는 교역자실로)

■ 목회자 동정 ■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미래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이종윤 목사는 이세미나에서 8일 오전 「기독교 21세기 사회와 교회여성의 여성」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 「100교회운동」자매결연 현황

93개 교회 후원자 확정

1995년 2월 4일 현재

■ 남선교회 / 19교회 ■ 여전도회 / 29교회 ■ 개인·가정 / 37교회 ■ 다락방 / 6교회 ■ 교회학교 / 2교회

| 번호 | 노회 | 교회명 | 교역자 | 후원자 |
|----|-------|---------|-----------|---------------|
| 90 | 여수노회 | 내경도교회 | 장 군 (전도사) | 이현규, 장선옥 |
| 91 | 전북남노회 | 세심교회 | 김재욱 (전도사) | 임상현 |
| 92 | 전북동교회 | 내도중앙교회 | 김동남 (전도사) | 서희숙 |
| 93 | 경북노회 | 화산 산성교회 | 윤일권 (전도사) | 임경민, 임규연, 임연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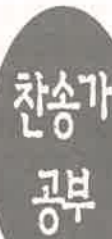
■문의 및 후원신청 100교회운동 본부 박종상 전도사 (☎ 517 - 7651)



새가족 환영회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의 순서를 가졌다. 새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소개나 간증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생활에 잘 적응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힘찬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요 II부 예배 시작 30분 전에 찬송가를 공부한다. 총 558장의 두꺼운 찬송가를 날마다 들고다니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안 불러본 찬양, 익숙하지 못한 곡조, 혹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해보지 못한 찬송들이 많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잘 모르던 찬양은 익히고, 잘못 부르던 찬송은 바로 부르도록 훈련하여 음악적으로도 최고의 정성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자. 지도는 임훈규 선생(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6차 킴치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2. 우리교회의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3. 재난을 당하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4. 더욱 힘써 정직·절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 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